

# 청약서 분실한 보험사 유가족과 분쟁 논란

### 보험사 "사망인 의무고지사항 위반해 보험금 지급불가" 유가족 "들은 바 없다... 허위기재·청약서분실 재조사해야"

국내 대형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 유가족이 청구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006년 피보험자 전 모(남, 2016년 사망 당시 55세)씨는 형과 함께 당시 D화재보험사의 A 통합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상해 및 자동차, 질병 등 종합보장해주는 통합형이었다.

전 씨는 수년 후 가입을 해지했고 전 씨는 2번의 갱신을 하며 보험을 유지하던 중 자동차보험 8개월 후인 2016년 9월 23일 이륜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해 유가족이 보험사 측에 사망보험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망한 전 씨가 이륜차 운행에 대해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가족 측은 "보험 가입 당시 해당 보험 대리점이 피보험자에게 이륜차 운행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며 "가입 후 2번의 보험 갱신 기간까지 한 번도 관련 내용을 들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보험사와의 고지의무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서류인 전 씨의 보험청약서를 분실하는 실수로 저질렀다.

보험청약서 분실 사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가족이 이륜차 운행과 보험료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대리점과 본사에 사망한 전 씨의 계약서를 요청하자 본사는 "청약서를 분실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유가족에 통보하면서 들통났다.

본지 기자가 청약서 분실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해당 보험사는 "분실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청약서 분실이 보험금 지급 불가 결정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청약서는 분실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사망인이 이륜차 운행에 대해 의무고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이륜차 운행에 대한 고지 내용 등이 담겨 있을 청약서를 본사가 분실한 데다 이륜차 운행하면 보험료 지급이 안 된다고 사망자에게 말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않고 '판례가 있으니 지급 불가하다'고 우기는 보험사 행태가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이들은 보험사가 2016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피보험자의 모집경위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모집경위서는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경위나 상품 설명, 의무사항 등을 보면



유가족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 중인 해당 보험사 전경 모습.

실제사나 보험사 관계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피보험자의 성명도 기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전 씨의 모집경위서에는 사망한 전 씨가 아닌 전 씨의 형 이름으로 작성돼 있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명 허위 작성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유가족들은 "대형보험사를 믿고 보험계약을 했는데 청약서도 분실하고 모집경위서에 이르기까지 엉뚱하게 기재돼 있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험사 주장을 믿겠나"며 "금융감독에서 허위서류 작성 이유와 보험금 지급 불가 이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영재 기자 jae-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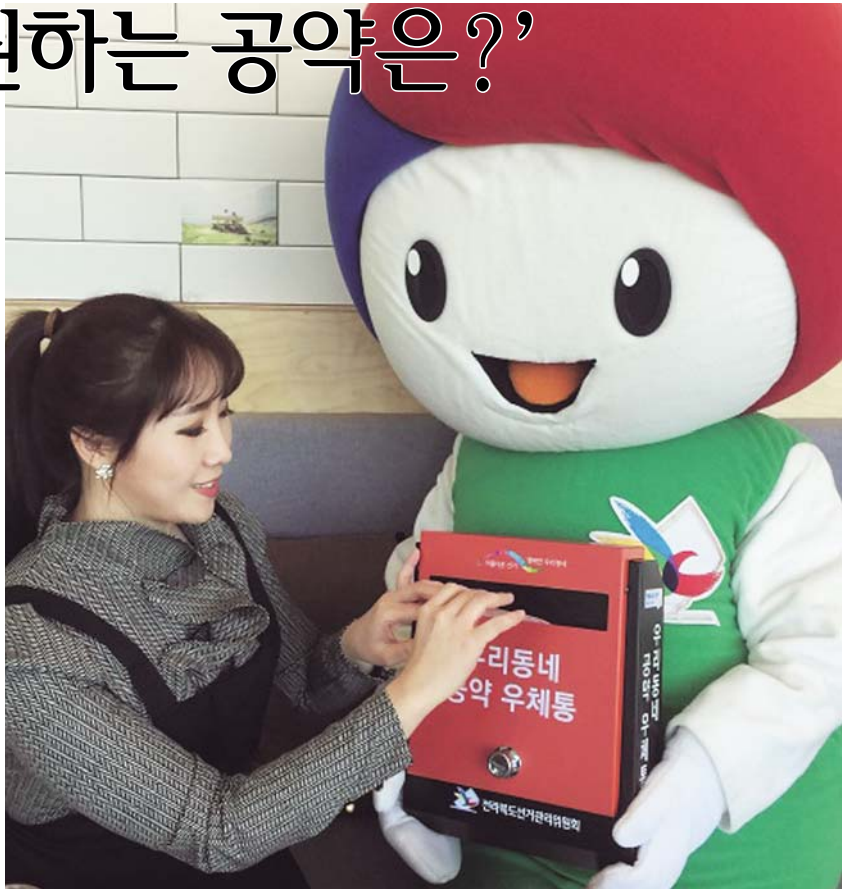
#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은?'

### 전북선관위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을 이달 말까지 운영 중이다.

공약 우체통은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에게 바라는 유권자들의 공약을 전하는 색다른 소통창구다. 전라북도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에서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공약 배달부로 나서 후보가 편리한 작은 박스 형태의 우체통을 들고 시민사회단체나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공약 사항을 접수한다.

공약은 선관위가 준비한 엽서 모양의 제안서에 자유롭게 작성해 공약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수집한 공약은 선관위가 분야별로 정리한 뒤 해당 선거구별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해 공약 제시에 참고·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는 또 5월 31일부터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공약 인형뽑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

공약 인형뽑기는 시중 인형뽑기 모양의 기계를 구·시·군별 다중밀집지역에 설치한 뒤 선관위 캐릭터 인형 '바루'에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부착해 넣고 유권자들이 이를 뽑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주연 기자

## 알립니다

### 지역취재본부장 및 주재기자 모집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뉴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역현안과 전국 방방곡곡의 생생한 현장소식을 전하며 매스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로컬신문에서 함께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지역취재본부장 및 주재기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부문 : 지역취재본부장 및 주재기자 모집

장 또는 주재 기자 지원 문구와 지원자 성명을 명기할 것.

모집지역 : 경기도(북부·남부),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 첨부파일 및 기입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이메일 접수 후 별도의 접수확인 회신은 하지 않으며, '수신확인' 기능으로 같음함.

지원자격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당 지역 거주자 우대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합격자 통보 일시 및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 2차 면접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 (사진 첨부, 연락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1부
- 자기소개서 (A4용지 1매) 1부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접수처

- 이메일 : news@segyelocal.com(인터넷 이메일로만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반드시 이메일 제목에 <세계로컬신문> 취재본부

문의처

- 본사 경영지원팀 : 02-2000-1686
- 팩스 : 02-2000-1680
- 이메일 : news@segyelocal.com

세계로컬신문

# 전기·자율차 등 '5대 신산업' 규제 개선 추진

### 산업부,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5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본격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혁신 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

비스가 규제에 의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움부즈맨' 활동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장출이 중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에 의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기획 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neunga@

# 통일시대 열어갈 지도자를 모십니다

### 제7기 통일지도자아카데미 3월 28일 개강

세계일보와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와 조사국이 주관하는 제7기 통일지도자아카데미를 엽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를 비롯하여 북핵, 외교안보, 총선거, 권력승계, 통일 이후 과거청산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길을 모색합니다. 대학, 연구기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모시는 본 과정에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 입학 안내

- 일 정: 2018년 3월 28~5월 30일(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10회 강좌)
- 장 소: 세계일보 유니홀(서울 중로구 경희궁길26 지하 1층)
- 신 청: 2018년 3월 5일부터 세계닷컴(www.segye.com) 배너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in1126@segye.com)이나 팩스(02-2000-1689)로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
- 모집인원: 50명 내외
- 수 강 료: 30만원(대학(원)생 20만원, 탈북민 무료)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0-435749 (주)세계일보
- 문 의: 세계일보 평화연구소(02)2000-1688 / 세계일보 조사국(02)2000-1683

## ■ 수료생 특전

- 7강자 이상 수강자에 통일지도위원 위촉
- 수료생 중 희망자에 한해 세계일보 조사위원 위촉
- 청심국제병원 건강검진 특별할인
- 용평리조트, 여수 디오션리조트, 무창포 비체펠리스 특별할인
- 현장 답사(본인 부담)  
7월: 남북통일기원 백두산, 안중근 의거 109주년 여순감옥  
9월: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 이주 현장 및 항일투쟁 유적지

주최 | 세계일보 | 통일교육협의회 | 후원 | 100년희원 (서울시청·일산)

### 제7기 통일지도자아카데미 강사 및 강의 일정

날 짜	강 사	주 제
1주차 3월 28일	한인택 고려대 정외과 교수·제35대 통일부 장관 前 대통령 통일정책특별보좌관	개강특강 : 한반도 미래와 통일
2주차 4월 4일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남북총선센터장 고려대 SSK연구단 교수	남북 총선거 대비론
3주차 4월 11일	박정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국민대 법대 교수 학장, 북한법제연구원 소장	통일 후 과거청산 해법
4주차 4월 18일	최경희 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 (사)샌드(SAND) 대표(탈북민 첫 해외박사)	북한 권력의 지행력
5주차 4월 25일	신원식 KBS 해설위원,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예비역 육군 중장	북한 비핵화와 통일
6주차 5월 2일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前 일본 릿쿄대학 방문연구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지정학
7주차 5월 9일	김현경 MBC 통일방송추진단장 前 MBC 통일전략대 팀장·북한학 박사	북한 권력승계 내막
8주차 5월 16일	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	한반도 통일의 설리사적 의미
9주차 5월 23일	김경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공공정책대학원 북한 통일정책학과 교수·前 서강대 부총장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
10주차 5월 30일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前 국립외교원장	총강특강 : 통일과 외교